



해외석유 정보

본 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에서 발간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편집자 주>

일본 Kygnus석유, POS에 Windows 접목

일본 키그너스石油은 test단계에 있던 新키그너스 POS network system(KPNS) 「K-GET I」를 2001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 POS system은 windows를 기본 장착하는 신형POS와는 달리 기존 POS단말기를 이용하여 정보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POS단말기를 PC가 보조하는 형태인데, 기존 기능을 커버하는 SIT(Shop Intelligent Terminal) 도입으로 정보제공을 빠르게 한다. Windows PC는 통상 POS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low cost 이며 또한 조달도 쉬워 주유소에 조기에 보급할 수 있다.

Network system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존 POS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PC와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신속한 판매정보를 입수하고 전략적 경영을 기할 수 있다.

POS에 여러가지 기능을 추가하여 부하를 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 1개 점포마다 SIT를 도입함으로써 cost를 대폭 경감해 특약점에 대한 자금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신속한 분석정보 제공과 동시에 생산성관리 등 효율경영을 지원한다. SIT 도입은 특약점과 주유소 관리작업 경감에 도움이 되어 양자 사이의 정보공유화를 기할 수 있다. 각종 data는 Windows에 data base화 되기 때문에 전포 입력작업 경감과 함께 특약점의 독자적인 범용 software를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Internet 활용에 의해 향후 새로운 판매촉진활동도 가능해진다.

Network system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人時생산

성 최적화를 피하는 인원 rotation simulation기능이 있다. 주유소 판매분석표에 「생산성항목」을 추가하여 GET program에 연동한 관리장표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관리system(CAMS)이 경량화되고 관리cost를 절감할 수 있다. 특약점 IT로부터 card lock data를 배송함으로써 card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JIS-I 대응에 의해 credit card 제휴처가 늘어난다. 주유소가 SIT에서 data를 갱신한 경우에도 ULL(Up Line Load)기능에 의해 center를 경유해 특약점본사 IT의 data base를 갱신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 data base를 활용할 수 있다. Remote maintenance의 application을 PC에 탑재(installation)하면 Kygnus Network Center가 trouble 발생시 maintenance를 담당한다.

키그너스石油가 제안하는 GET program은 지금까지의 주유소 경영을 소매업의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한다거나 매장에서의 data분석을 base화해 고객의 가치관에 맞는 점포 service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新system「K-GET I」는 GET program의「경영 분석력 강화」를 backup한다.

<Oil Report, 2000. 12.11>

중남미 산유국, 석유거품붕괴 우려

OPEC은 17일에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의결된 감산 실천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중남미 산유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석유수출 평균가격이 20\$/B 이하로까지 하락했기 때

문에 가격을 높게 예상했던 2001년의 국가예산이 심각한 수정국면에 직면해 에너지투자가 위기에 처해 있다.

고가전략은 OPEC의 생산감축을 의미해 중남미지역의 2대산유국인 OPEC회원국 베네수엘라와 OPEC지국인 멕시코에게 있어서는 각각 약 300만B/D인 현재의 생산량에서 다시 감축한다는 것은 필요한 석유생산능력 개발노력의 심각한 장애가 되지만 할 뿐이다.

PDVSA(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는 2000년초, 65만B/D나 떨어졌던 생산량 회복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 감소는 주로 '98년과 '99년의 OPEC 감산에 따르기 위해 가동중인 유전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PDVSA는 생산능력이 예전의 280만에서 390만b/d까지 증가했다고 주장해왔지만, 300만b/d를 크게 넘었다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라마다 대통령은 주로 2001년에 상류부문용 지출을 29% 인상해 58억\$로 늘린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작년 PDVSA가 책정한 예산 총 45억\$는 석유가격이 예산산정의 기초가 된 16.50\$를 크게 웃돌았는데도 전액 지출되지 않았다. PDVSA의 수입이 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금년 국가예산은 석유가격이 20\$/B를 기초로 산정되어 현재 베네수엘라 원유가격에 상당히 가깝다.

베네수엘라를 적어도 150만b/d의 OPEC의 감산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표명했지만, 과거 3년간 대폭 감산을 실시해 OPEC의 전략에 큰 힘을 실어주었던 멕시코는 감산 여부를 OPEC총회 후까지 기다리고 있는 등 가능한 한 뒤로 미루는 듯 하다.

국가예산의 35%를 석유수입(收入)에 의존하는 멕시코는 국가예산 산정시 유가를 18\$/B 수준으로 채택했다. 최근, 미국수출용 마야원유의 바스켓가격이 16.20\$/B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멕시코 원유의 바스켓가격은 17.95\$/B까지 하락했다.

아울러 좌익 성향의 의회는 폭스 새 대통령의 사회부문에 대한 예산지출에 30억\$를 추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보좌관은 그 삭감을 검토중이다. 이와 같은 삭감은 사회계획이 아니라 에너지부문에서 시행될 듯 하다.

생산량을 희생시켜서라도 가격을 인상시켜 이익을 얻으려는 한편, PEMEX(멕시코국영석유회사)의 적극적인 상류개발계획은 희생시키지 않을 지도 모른다.

마틴스 에너지장관은 멕시코는 미국의 금리인하 여부를 삭감결정전까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만일 석유가격이 18\$/B까지 내려가면 멕시코대통령은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에콰도르는 자주적 감산이 어렵기 때문에 OPEC에 일임할 것이다. 에콰도르는 中質Sour원유인 오리엔테 원유의 수출가격이 30\$/B를 웃돌았던 시기에 20\$/B를 기초로 예산을 책정했다. 비슷한 유종이 주요시장인 미국서해안에서 과잉기미가 보였던 1월 10일 현재, 가격은 17.30\$까지 하락했다. 겨우 경기후퇴를 벗어났지만 정치가 불안하고 또 국가예산의 50%를 석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콰도르는 중남미 지역 산유국중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콜롬비아는 이 지역의 산유국중에서 가장 상황이 가장 나다. 콜롬비아의 경질Sweet원유인 쿠시아나 원유는 주변 국가의 원유보다 훨씬 고가이고, 경제는 재정질서가 안정되어 있다. 파스토라나 정권은 여전히 24\$/B로 2001년 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산유국 정부가 가격변동의 영향, 즉 석유가격의 안정 또는 하락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이 부문 관련 자금은 작년 총 10억\$에 지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50억\$의 자금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차베스 대통령은 이 자금을 자신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같은 자금의 악용은 2001년도 이 부문 예산에 50억\$의 큰 손실을 입힐지도 모른다고 분석가는 내다보고 있다.

<연료유지신문, 2001.1. 17>

일본 자원에너지청, 석유관련법 개정 추진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석유산업 구조개혁환경정비 차원에서 석유업법 폐지, 석유공단법 개정, 비축제도 강화, 긴급시 대응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석유비축법 개정을 실시할 방침인데 2월 각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석유업법 폐지후 개정 석유비축법에 따른 정제업, 판매업, 수입업의 사업자 파악을 통해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석유업법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판매업자는 석유업법과 같이 '신고제'로 고치고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석유업법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수입업자의 등록제에 관해서는 ① 비축의무이행에 필요한 석유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석유비축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사전 적격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입업자의 등록제는 예전에 특석법(특정석유제품수입잠정조치법)에 의해 휘발유, 등유, 경유의 3개 유종에 대해 시행되어 온 적이 있다. 특석법 폐지후는 신고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특석법폐지후 신규 참여 수입업자 61개사 중 실제로 수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30개사. 그 중 16개사가 70일의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중 10개사는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규 참여업자의 수입물량은 최근에는 해외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특석법 폐지후 계속 늘어 국내 석유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이와 같은 상황을 기초로 수입업자의 확실한 비축의무 이행을 위해 안정공급 차원에서 현행 석유업법에서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석유비축법 하에서는 수입업자의 사전심사를 통해 비축의무 이행을 위한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과거에 석유비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나 등 적정성을 검토해 수입업자의 등록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원유와 석유제품 모든 유종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특석법의 대상이었던 휘발유, 등유, 경유 3개 유종 이외는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제'로 변경된다. 현행 석유업법하에서 원유수입은 신고제이지만 정제업자와 三菱商事 이외의 원유수입은 인정되고 있지 않았던

적도 있다. 석유업법 폐지와 개정 석유비축법 시행으로 원유수입도 '등록제'로 이행해 정제업자 이외의 업자도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면 원유수입이 가능해진다. 全農이 작년 5월에 원유 위탁정제를 오끼나와(沖繩)석유정제를 통해 실시했었는데 실제 수입은 수입업자인 오끼나와(沖繩)석유정제가 했다. 일부 상사도 같은 방법으로 위탁정제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석유업법 폐지에 따른 수입업자의 등록제 이행으로 정제업자 이외의 원유수입이 확대될 지 주목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석유비축법은 국회 통과후 3일후에 공포될 예정인데 4월중에는 공포할 예정이다.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은 10월경이 될 듯 하다.

<연료유지신문, 2001.1.19>

일본의 석유관련법 개정과 석유판매업

일본 석유산업은 국제화·자유화에 따른 경쟁심화, 대형석유회사의 4극체제 형성, 환경부문 압력에 의한 석유 수요구조 변화 등으로 최근의 경영환경은 상당히 어렵다. 석유판매업자수는 특석법 폐지 1년전인 95년 3월말 31,559개사에서 2000년 3월말에는 27,794개사로 3,765개사나 줄었고 그 후도 석유판매업자의 폐업이나 도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본 全石連회장은 특석법 폐지 이후, 석유판매업계의 두드러진 변화로 「대규모 슈퍼마켓이나 메이저계열 주유소의 활발한 신규참여, 有人셀프주유소 해금, 대형 회사소유 주유소 건설, 출자자회사 중심의 판매망 정리·통합, commission·agent방식 도입 등 각 원매 회사의 적극적인 유통단계 참여」등을 들었다.

원매회사나 판매업자 입장에서 향후 큰 불확실 요인중 하나는 제도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완전자유화와 그에 따른 영향일 것이다. 그 속에서 경쟁조건이나 경영환경 변화 양상은 석유법제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일련의 규제완화조치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석유산업의 제도개혁에서는 석유비축법 개정을 축으

로 하는 신법이 2월 내각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고 4~5월에 가결·공포, 2001년도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법 성립과 동시에 1962년 이래 40여년간 석유 정책의 기본법으로 석유의 수입·정제·판매에 영향을 미쳐 온 석유업법은 소멸된다. 신법에 대해 간략히 보면, 판매업자는 석유업법에서와 같이 신고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제업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어 누구나 신고만 하면 원유를 자유롭게 수입하고 정제할 수 있게 된다. 수입업자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되어 정제업자와 같이 일정한 비축능력 보유가 등록 요건이 되어 더욱 엄격해진다. 자본과 능력을 갖춘 거대기업이라면 해외기업도 자유롭게 신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제·원매회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화·합리화를 더욱 철저히 추진해 채산성 확보 차원에서 계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도로부터는 석유공급계획도 책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제·원매회사, 판매업자 모두 이제부터는 자체적으로 수급balance를 유지해야 한다. 채산을 무시하고 확대판매나 염가판매를 하거나 하면 자기 목을 스스로 조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다양해지는 주유소의 기능

21세기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문제이다. eco station으로는 전기, 천연가스, 메탄올, LPG 등이 있는데, 천연가스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이외는 대개 휘발유판매업자가 그 주체가 되고 있다. 주유소나 LPG충전소를 병설하지 않으면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는 아직 백수십여개 정도로 그 수가 상당히 적지만, 휘발유나 경유 이외의 대체에너지 자동차가 실용화되면 그 연료거점도 늘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연료전자자동차는 日石三菱, 出光興産, 코스모석유, Japan energy 등 대형 민족계 원매회사가 이미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Exxon-Mobil marketing의 바델 사장은 연료전자차 개발에 공동협

력하고 있는 토요타자동차와 General Motors가 연료 전자자동차 연료로 천연가스를 포함해 휘발유 등 석유계 연료 사용에 합의했다고 공식석상에서 밝혔다. 장래 연료전자자동차가 실용화되어 보급된다면 주유소는 연료공급거점으로 그대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도 Shell의 중간유분 합성(SMDS)기술을 활용한 GTL(가스액화유)도 석유 유통 루트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유소의 이용가치는 상당히 높다.

저연비 자동차나 clean자동차 실용화에 따른 석유 수요 구조변화를 감안해 주유소를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제품 공급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car life 관련 업무 전반의 취급거점으로 정착시키는 사업을 모든 원매회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日石三菱(닛세끼미쓰비시)는 car life support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doctor drive」형 주유소 network를 만들고 코스모 석유도 car care convenience 「B-cle」병설 주유소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 出光興産(이데미쓰코산)은 net business를 활용한 car life service회사 「쿠루마크」를 Fujitsu와 공동으로 설립, 계열 주유소에서 각종 maintenance, 차량검사, 자동차 관련 상품 판매중개 등의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net상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곳은 日石三菱, 코스모석유, Japan energy도 마찬가지다. Japan energy는 올해 6월부터 계열 주유소에서 차량검사 사업을 시작해 2001년도안에 2,000개 계열주유소에 도입한다.

셀프주유소 숫자는 아직 절대적으로 적지만 해금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석유정보센터 조사에서는 2000년 12월 현재 356개로 고정식 주유소 53,307개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36%가 편의점 병설이나 슈퍼마켓 인접 복합영업형태를 취하고 있고 자동세차기를 갖춘 셀프주유소도 많다. 🚰

〈Oil Report, 2001. 1. 29〉